

## 나체상태와 외모관리 후의 신체만족도 차이 - 20대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

김정원 · 윤종희

경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 The Body Cathexis Difference between Naked Body and After Appearance management Body of 20-30 yrs College Students

Jung-Won Kim and Jong-Hee Yoon

Dept. of Clothing & Design, Kyungil University, Kyungsan,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perceptions of the nude body and of the clothed body as measured by body cathexis scale. Subjects were 274 college male and female between 20~30 yrs. Data were analyzed by using frequency, T test, cluster analysis, Duncan test by using Spss for window 8.0 PC program. Significant difference were found between mean scores of male and female on the nude body cathexis (NBC) and clothed body cathexis (CBC) Scales for hair texture, hair color, face, face color, shape of head, eye, lips, forehead, back, trunk, waist, bust, leg of shape, chest, hip. On th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NBC and CBC scales for all body parts except hair texture, face color, ears, eyes, teeth. Male had higher satisfaction than female in both body cathexis. The taller men, the higher body satisfaction with face shape, body shape, height in both body cathexis. Before appearance management, the bigger men, the higher body satisfaction with muscle, waist, height, chest, body shape in both body cathexis. Male had higher satisfaction than female in both body cathexis. The taller women, the higher body satisfaction with neck, body shape, height in before appearance management. The bigger women, the higher body satisfaction with heights, weight distributions, waist, height in both.

**Key words :** body, body cathexis, body satisfaction, body perception.

## 1. 서 론

최근 급변하는 국내 사회 현상 중 하나는 내적인 아름다움 보다는 외적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신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표출되고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보다 아름다운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스포츠, 미용기기, 에어로빅, 다이어트 치료법 등 다양한 방법과 더불어 근년에는 메이크업 기술의 발달과 각종 기능성 의복으로 보다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체형의 단점을 감추어주고 장점을 강조해 줌으로서 신체만족을 높이고 있다.

Secord 와 Jourard(1953)는 신체만족도(body cathexis)란 자기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하여 갖는 만족도라고 정의하면서 신체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이후 신체만족도와 자아와 관련 연구(Johnson, 1956; Sontag & Shalter, 1982;

Hamilton & Chowdhary, 1989; 김양진과 강혜원, 1992; 고애란과 김양진, 1996), 국내 여성의 신체외식, 실제체형과 신체이상형에 관한 연구(박우미, 1993; 최유미와 손희순, 1997; 정재은과 이순원, 1993, 1998), 신체만족도와 의복관련 연구(Richard & Hawthorne, 1971; Mclean, 1978; 이영윤과 강혜원, 1982; Ford & Drake, 1982; Shim & Antigone & Diane & Knoll, 1990; 홍병숙, 1996; 구양숙과 추태귀, 1996; 유경숙, 1996; 이수지와 이인자, 1996; 김용숙, 1986, 1990; 황진숙, 1997, 1998a, 1998b; Kefgen & Touchie-specht, 1986; 神山進의 2인, 1987; Karen & Marilyn, 1990) 등 여러학자들에 의해 신체만족도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 되어왔으나 거의 대부분이 의복을 신체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옷을 입거나 자신의 신체의 어떤 부분을 치장 관리한 상태에서의 신체 만족도를 연구한 것이 대부분으로 나체시와 외모를 관리 조절한 후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패션의 경향은 시스루 룩, 란제리 룩 등과 같은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거나, 캣걸 룩, 바디페인터 수트 등과 같은 보디라인이 드러나는 의복들이 유행하고 있어 나체 상태에

Corresponding author; Jung-Won Kim  
Tel. 82-53-850-7513, Fax. 82-53-850-7620  
E-mail: gwkim@bear.kyungil.ac.kr

서의 신체만족도와 의복 등으로 신체를 관리한 후의 신체만족도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20대 남녀 대학생이 자기 자신의 나체시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 정도가 신체를 화장하거나 의복을 착용한 후 즉 외모를 관리한 후에 신체 각 부위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만족 정도는 남녀간, 연령간에 차이가 있는지, 키와 몸무게 비만도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고, 감추고 싶은 부위와 노출시키고 싶은 부위를 발견하여 신체의 단점을 감추어 주고 장점을 강조할 수 있는 의복의 디자인이나 착의 방법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의복 및 신체 조절용 상품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신체만족도와 관련 연구

Secord 와 Jourard(1953)는 신체만족도(body cathexis)란 자기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하여 갖는 만족도라고 정의하면서 신체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이후 국의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신체만족도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Horn(1968)은 신체만족도란 신체의 전체나 각 부분에 대한 개인의 만족, 불만족의 느낌을 말하는 것으로 인종과 성에서 차이가 나며 의복과 관련된 행동과 연관이 있으며 자기 신체에 대한 태도를 질문함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Richard 와 Hawthorne(1971)은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농학계열 학생이 상경계열 학생보다, 1학년이 4학년보다 신체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인관계가 많은 상경계열 학생이 외모에 더 신경을 쓰며 더 비판적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하면서 신체적 만족은 신체기능과 외모에 관한 감정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복행동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의복은 신체불만족을 보상해줄 수 있고, 신체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의복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ontag & Shalter, 1982). 이렇듯 의복은 자아의 확장과 진정한 의미의 신체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며, 신체만족도는 의복만족도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이다(강혜원, 1990). 또한 신체변화로 인한 육체적인 결점을 보완해주며 신체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와의 거리를 좁혀 심리적 만족을 줌으로써 노년기에 있어서는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Perry, 1985).

일반적으로 자신감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은 신체에 대한 자신감으로 의복에 더 많은 욕구를 가지며 특히 노인의 경우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긍정적인 신체적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의복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유하고 있는 의복 및 의복생활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혜원, 1990; 유경숙, 1984; 박미애, 1987). 외모에

대한 관심을 교육과 생활정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 교육과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정희용·임숙자, 1988) 신체만족도는 학력이나 생활정도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혜원, 1990).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신체평가 또는 신체만족도 및 의복행동 등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와 의복에 대한 만족도와와의 관계 연구(神山進, 1987)와 신체분석과 의복 피트성에 대한 만족도연구(Karen & Marilyn, 1990)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정삼호, 1991)등이 있으며, Kefgen & Touchie-specht(1986)은 개인의 외모와 의복선택연구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란 스스로의 신체분석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적 의식이며, 실제 연구에서 자신의 정확한 신체적 영상을 가진 사람은 소수라고 하였으며 외모와 신체적능력은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의 신체상은 비교적 일찍 형성된다고 하였다.

한편 개인에 따라서는 자신의 실제 모습과는 다른 왜곡된 신체상을 갖는 경우도 있으며 정확한 신체상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과 눈이 정확한 분석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Dubler 와 Gurel(1984)은 여성들은 감정이 우울해졌을 때 자신의 외모나 의복에 대한 기분도 변화된다고 하였다. 우울한 경우에는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미국의 여성 경우 10명중 1명의 비율로 유방암으로 인하여 절제수술이나 화학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탈모증세나 유방 절제 상태는 여성의 외모만족도와 자존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여성의 경우 신체만족도와 자아만족도의 저하가 심했다.

Rook(1987)은 개인의 신체 이미지의 한 측면과 몸치장 용품 사용량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신체만족도는 소비자의 장식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에 대하여 덜 긍정적이었고, 신체만족도와 장식하는 행동수준에서 신체형태에 긍정적인 사람은 치장용품을 더 자주 사용하였다. 치장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 남성은 전반적인 외모에 더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치장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 여성은 신체의 세부적인 것에 더 긍정적이었다.

Ford 와 Drake(1982)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및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을 조사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또한 의복에 대한 세련됨과 신체만족도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Horn 과 Gurel은 여고생들 사이에서는 신체에 만족하는 학생이 의복에 관심이 많으며, 의복을 이성의 주의를 끄는데 사용하고, 신체적 자아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정신적 안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명희(1982)는 신체적자아가 높거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의복의 심미성과 주의집중성을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강승희(1992)는 신체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더 외모에 신경을 쓰므로 자신의 신체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의복을 구매하려고 의복구매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고 하였다. 이영

윤(1981)은 중년기 여성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에서 신체만족도와 의복의 몸에 맞음새에 차이를 보이고, 신체에 만족할 때 의복에 대해서 만족하고 의복도 몸에 잘 맞는다고 하였다. 또한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일 수록 자신의 신체 및 의복에 더 만족했고, 의복이 몸에 잘 맞는다고 느끼며,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고, 유행되는 스타일의 의복을 선택했다. 김양진(1992)은 여고생의 신체만족도 연구에서 신체만족도는 다소 낮았고, 특히 하체부위에 불만족했으며,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같은 수준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의복으로 부정적인 신체자아개념의 극복가능성을 시사하였다.

### 3. 연구방법 및 절차

#### 3.1. 연구문제

- 1) 남녀 대학생의 외모관리 전·후 신체 각 부위별 신체만족도 차이를 알아본다.
- 2) 남녀 대학생의 성별·연령별 외모관리 전·후의 신체 각 부위별 신체만족도 차이를 알아본다.
- 3) 남녀대학생의 신장·체중·비만도별 외모관리 전·후의 신체 각 부위별 신체만족도 차이를 알아본다.

####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신체만족도에 관한 항목은 조사대상자가 나체상태와 어떤 방법으로 간에 신체를 치장·관리·조절한 후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하여 느낀 점을 아주 만족하지 않는다(1점)에서 아주 만족한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체의 각 부분을 대표하여 33개의 항목이 사용되었으며 이 척도는 Secord and Jourard(1953)가 개발한 body cathexis scale 46문항 중 연구자가 우리실정에 맞게 33개의 항목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용된 측정 척도에 대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거쳐 내용 타당성을 확인 받았고, 신뢰도 분석으로는 Cronbach Alpha가 0.83으로 만족할 만 하였다.

#### 3.3. 표본구성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20대 남녀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해서 설문지 문항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아 수정·보완하였으며 본 조사의 자료수집은 1,2차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 보완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997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300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한 17부는 제외하고 274부만 최종 통계처리하여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분포는 여성이 143(51.2%), 남성이 135(49%)이며, 연령은 21~23세가 128명(남성 20, 여성 108), 24~25세가 68명(남성 41, 여성 27), 26~28세가 68명(남성 61, 여성 6), 29~30세가 15명(남성 11, 여성 2)이었으며, 신체 구성비

를 보면, 신장은 여성은 160~164 cm가 61명(4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65~169 cm가 37명(25.9%), 155~159 cm가 18명(12.6%), 170 cm이상이 11명(0.77%), 150~154 cm가 6명(0.42%)로 가장 적은 수를 나타내었다. 남성의 경우는 170~174 cm가 53명(3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75~179 cm가 48명(35.6%), 165~169 cm가 21명(15.6%), 180~184 cm가 13명(0.96%)로 가장 적은 수를 나타내었다.

몸무게는 여성의 경우 48~51 kg가 48명 (3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4~47 kg가 39명(27.3%), 52~55 kg가 30명(21%), 40~43 kg이 12명(0.84%), 56 kg이상이 14명(0.98%)로 가장 작은 수를 보였고, 남성의 경우 65~69 kg가 43명(3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64 kg가 36명(26.7%), 55~59 kg가 21명(15.6%), 70~74 kg가 20명(14.8%), 75 kg이상이 15명(11.1%)로 가장 적은 수를 나타내었다.

Rohrer 지수에 의한 체형 구분을 보면, 여성의 경우 빈약형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97명(67.8%)로 가장 많았고, 표준형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46명(32.2%), 비만형으로 구분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으며, 남성의 경우 빈약형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43명(30.9%), 표준형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92명(66.1%), 비만형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4명(2.9%) 분류되었다.

#### 3.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빈도와 요인분석, T 검정, F 검정,  $\chi^2$  검정, 상관관계, Duncan의 사후검정을 이용하였다.

남여의 신체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와 남녀 각각 외모관리 전후의 신체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연령, 키, 몸무게, 비만도 차이에 따른 외모관리 전·후의 신체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F 검정과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신체만족도에 있어서 신체 부위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밝히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한편, 비만·표준·빈약의 객관적 체형분류는 Röhler지수= $\{(\text{몸무게}/\text{키}^3) \cdot 10^3\}$ 를 사용하여 계측자료를 Röhler지수 1.2미만을 따른 체형, Röhler 지수 1.2이상 1.5미만을 표준체형, Röhler지수 1.5이상을 뚱뚱한 체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연구의 연구대상이 20대, 일자형의 날씬한 형이 주종을 이루므로 Röhler지수에 의한 기준으로는 비만형에 속하는 대상이 거의 없어 빈약형과 표준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4. 결과 및 논의

#### 4.1. 외모관리 전·후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신체만족도

20대 남녀 대학생의 외모관리 전·후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한 개괄적인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체만족도의 기술통계치와 외모관리 전·후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 test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외모를 관리하기 전 나체시의 신체 전반(total body)에 대해

**Table 1.** Means and t values for nude body cathexis before-after appearance management

Body item	BCBAM		BCAAM		t-value
	M	SD	M	SD	
Hair texture	3.16	1.05	3.48	1.03	-6.581***
Hair color	3.49	0.99	3.67	0.94	-4.145***
Bodily hair	3.18	1.02	3.31	1.00	-3.184**
Facial complexion	3.09	1.02	3.26	1.03	-3.875***
Face color	3.13	1.05	3.38	0.96	-5.247***
Shape of head	3.16	1.11	3.30	1.05	-4.245***
Skin texture	3.10	1.24	3.30	1.14	-4.341***
Nose	3.08	1.04	3.18	1.04	-2.498*
Ears	3.66	0.93	3.63	0.96	0.768
Eyes	2.28	1.07	3.47	1.04	-4.100***
Lips	3.35	0.92	3.55	0.94	-4.889***
Teaches	3.05	1.10	3.21	1.02	-4.619***
Forehead	3.2	1.04	3.36	0.94	-4.131***
Chin	3.24	0.93	3.34	0.90	-3.462**
Neck	3.34	0.95	3.40	0.93	-2.240*
Finger	3.21	1.16	3.34	1.09	-3.290**
Muscle	3.00	0.99	3.16	0.93	-3.428**
Wrist	3.34	1.03	3.39	0.94	-1.496
Back	3.18	0.93	3.33	0.87	-3.903***
Body build	2.90	1.09	3.12	0.09	-4.973***
Height	2.89	1.24	3.02	1.21	-2.783**
Weight distribution	2.78	1.11	3.03	1.09	-5.552***
Waist	3.01	1.05	3.13	1.00	-2.791**
Chest	2.9	1.00	3.13	0.97	-5.375***
Shoulder width	3.11	1.06	3.30	0.99	-4.471***
Arms	3.16	0.92	3.22	0.91	-1.649
Hips	2.83	1.08	3.04	1.04	-5.244***
Legs	2.73	1.10	2.99	1.09	-5.454***
Feet	3.17	1.02	3.23	0.97	-1.389
Knees	3.13	0.84	3.27	0.86	-3.428**
Finger nails	3.35	1.03	3.58	1.00	-5.928***
Sex	3.86	1.10	3.85	1.05	0.184
Age	3.39	1.14	3.42	1.07	-0.742
Total score	103.95	34.35	109.4	31.1	

\*p&lt;.05, \*\*p&lt;.01, \*\*\*p&lt;.001

BCBAM: body cathexis before appearance management

BCAAM: body cathexis after appearance management

서는 보통 정도의 만족을 보이고 있으며, 신체 각 부위별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특히 자신들의 성, 즉 남성, 여성이라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불만족한 신체 부위는 눈, 다음으로 체격, 키, 지방분포, 가슴, 힙, 다리부위에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모관리 후에는 귀, 손목, 팔, 발, 성, 나이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서 나체시에는 만족하지 않은 신체 부위에도 만족 점수가 높아져서(그저 그렇다(3점)) 의복이나 신체조절 도구는 신체만족을 높이는 도구로써 확실히 인정되었다. 특히 외모관리 전·후 간에 차이를 가장 많이 보이는 신체 부위, 다시 말

해서 외모관리 효과가 높은 부위는 머릿결, 머리색, 얼굴형태, 얼굴색, 두상, 피부색, 등 얼굴부위와 눈, 입술, 이빨, 이마, 등 얼굴의 부분 부위, 그리고 등, 체격, 지방질 분포, 허리, 가슴, 어깨넓이, 힙, 다리, 손톱 등 넓이 부위로 나타났다.

#### 4.2. 성차이에 따른 외모관리 전·후의 신체만족도 차이

나체 시와 신체를 관리한 후의 신체 각 부위별 만족도에 대한 남녀간 차이를 Table 2에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부위에서 남성이 여성 보다 신체 만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역할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신체 내면보다 겉모습으로 평가받는 여성에게는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신체 각 부위별 만족도에 있어서 성차이를 보면 신체 형태나 기능보다는 자신들의 성, 즉 남성, 여성이라는 것에 대한 만족에서 가장 심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은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높은 만족(매우 만족한다)을 보여 모든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남녀 차이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 신체부위는 머릿결, 얼굴색, 귀, 눈, 이빨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에 대한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 전·후의 신체만족 정도에서 관리 후 높아지는 부위와 그대로인 부위, 그리고 오히려 낮아지는 부위에 대한 남녀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3 남성의 경우 외모관리 후 신체 만족이 낮아지는 정도는 높아지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나, 부위별로 보면 의미심장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근육, 허리, 어깨, 키, 팔, 다리 성, 등의 부위로 주로 신체 골격을 이루는 부위로써 이 부위에는 의복으로 자신의 신체를 가리거나 하면 자신의 몸매에 대해서 오히려 만족이 낮아지는데,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부위는 노출하고자 하는 부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깨, 근육, 가슴, 허리는 남성의 역삼각형을 만드는 부위인데 이 부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남성은 의복으로 몸을 감추기 보다 드러냄으로서 자신의 멋진 몸매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팔, 다리, 발은 남성의 힘을 나타내는 부위로써 이 부위에 대한 노출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10-20대 남성의 쭉티, 쭉바지, 반바지, 샌들착용의 유행현상과 무관하지는 않으리라 사려된다.

여성의 경우 역시 외모관리 후 오히려 신체만족이 낮아지는 정도는 높아지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부위별로 보면 머리색, 얼굴형, 피부색, 귀, 눈, 입술, 손목, 팔, 키, 발, 연령의 부위에 대해서는 의복이나 화장, 염색, 등으로 자신의 신체를 가리거나 변경하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이 오히려 낮아지는데 바꾸어 말하면 이 부위들은 노출하고자 하는 부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성의 경우는 주로 신체의 골격을 이루는 부위였으나 여성은 주로 얼굴부위에 대해서 화장이나 염색 등으로 조절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170

Table 2. Body cathexis before-after appearance management according to sex difference

Body Item	Male				Female				BCBAM
	BCAAM		BCBAM		BCAAM		t-value		
	M	SD	M	SD	M	SD	M	SD	
Hair texture	3.16	0.96	3.50	0.92	3.17	1.13	3.45	1.13	1.10
Hair color	3.56	0.99	3.67	0.93	3.41	0.98	3.66	0.94	-1.27*
Bodily hair	3.31	0.93	3.37	0.90	3.06	1.09	3.25	1.10	-2.10**
Facial complexion	3.28	0.94	3.44	0.94	2.91	1.06	3.08	1.07	-3.10***
Face color	3.13	1.08	3.31	0.98	3.14	1.03	3.44	0.94	0.11
Shape of head	3.24	1.07	3.37	1.03	3.08	1.15	3.24	1.07	-1.15*
Skin texture	3.16	1.22	3.33	1.13	3.04	1.25	3.29	1.15	-0.82*
Nose	3.30	1.02	3.35	1.03	2.88	1.02	3.03	1.03	-3.40***
Ears	3.64	0.93	3.67	0.97	3.66	0.94	3.59	0.95	0.18
Eyes	3.30	1.04	3.41	1.01	3.27	1.10	3.52	1.07	-0.24
Lips	3.42	0.87	3.53	0.88	3.28	0.97	3.56	1.00	-1.29*
Teaches	3.04	1.03	3.24	0.98	3.07	1.16	3.24	1.05	0.25
Forehead	3.24	1.02	3.44	0.88	3.15	1.06	3.28	1.00	-0.73*
Chin	3.36	0.86	3.46	0.81	3.12	0.98	3.22	1.00	-2.20**
Neck	3.38	0.92	3.45	0.92	3.29	0.98	3.56	0.95	-0.73*
Finger	3.33	1.10	3.45	1.03	3.10	1.21	3.23	1.14	-1.64*
Muscle	3.16	1.02	3.36	0.97	2.85	0.94	2.97	0.84	-2.70***
Wist	3.17	0.97	3.27	0.88	3.49	1.06	3.50	0.98	2.60**
Rack	3.20	0.87	3.33	0.83	3.17	0.98	3.32	0.92	-0.29
Body build	3.19	1.10	3.36	1.10	2.64	1.02	2.89	1.02	-4.32**
Height	3.07	1.15	3.13	1.13	2.71	1.30	2.92	1.28	-2.39**
Weight distribution	3.07	1.06	3.26	1.01	2.52	1.10	2.82	1.13	-4.24***
Waist	3.21	0.93	3.29	0.89	2.82	1.12	2.99	1.07	-3.21***
Chest	3.23	0.94	3.41	0.92	2.59	0.97	2.86	0.95	-5.62***
Shoulder width	3.31	1.03	3.46	0.97	2.92	1.05	3.14	1.00	-3.11***
Arms	3.24	0.84	3.30	0.87	3.08	0.99	3.13	0.95	-1.45*
Hips	3.15	0.97	3.30	0.96	2.53	1.10	2.79	1.04	-4.96***
Legs	3.03	1.00	3.21	0.98	2.45	1.12	2.78	1.15	-4.50***
Feet	3.23	0.90	3.33	0.90	3.12	1.12	3.13	1.02	-0.91*
Knees	3.21	0.84	3.35	0.79	3.06	0.83	3.19	0.90	-1.44*
Finger nails	3.43	1.00	3.59	0.99	3.27	1.06	3.57	1.02	-1.33*
Sex	4.27	0.89	4.19	0.91	3.47	1.15	3.53	1.08	-6.52***
Age	3.48	1.20	3.51	1.15	3.29	1.07	3.33	0.99	-1.38*
Total score	108.5	33.9	112.6	31.6	100.6	35.1	106.5	33.9	

\*p<.05, \*\*p<.01, \*\*\*p<.001

BCBAM: body cathexis before appearance management

BCAAM: body cathexis after appearance management

cm이상의 키가 큰 여성의 경우는 외모관리 후에 자신의 키에 대해서 오히려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성과 달리 신체 상체 부위 즉 가슴이나 허리 어깨 부위에 대한 노출 욕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서 아직은 국내 여성의 가슴을 노출하는 시스루룩 유행은 어려울 듯하다. 특히 가슴과 다리 팔 피부색 허리 배꼽 부위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여학생은 외모관리 후 즉 옷으로 몸을 감추거나, 화장으로 인해서 본래의 모습을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이 20대의 가장 아름다운 외모

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그 수는 많지 않지만 남다른 욕구를 지닌 이러한 소비자의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위의 노출이 있는 의복 디자인이 요구된다. 배꼽 부위의 노출 욕구는 근년 국내의 배꼽 티셔츠의 유행현상과 무관하지는 않을 듯하다. 2000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유행경향은 여성들의 신체를 가능한 자유롭게 아름답게 노출하는 의복들이 유행하리라는 예측이 많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여성이 신체부위 중 어떤 부위에 대해서 더 나타내기를 원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려된다.

Table 3. Changing degree of body cathexis before and after appearance management

Body item	Male			Female			Total		
	+	-	0	+	-	0	+	-	0
Hair texture	56	11	68	47	11	85	103	22	153
Hair color	26	10	99	46	16	81	72	26	180
Bodily hair	15	9	111	33	10	100	48	19	211
Facial complexion	29	7	99	38	14	91	67	21	190
Face color	30	8	97	47	12	84	77	20	181
Shape of head	24	8	103	33	10	100	57	18	203
Skin texture	31	12	92	51	14	78	82	26	170
Nose	19	10	106	29	12	102	48	22	208
Ears	14	8	113	8	13	122	22	21	235
Eyes	23	8	104	48	15	80	71	23	184
Lips	24	7	104	46	14	83	70	21	187
Teaches	25	5	105	23	7	113	48	12	218
Forehead	26	4	105	29	8	106	55	12	211
Chin	17	7	111	21	8	114	38	15	225
Neck	20	11	104	18	9	116	38	20	220
Finger	28	14	93	30	12	101	58	26	194
Muscle	37	20	78	28	10	105	65	30	183
Wrist	19	11	105	15	14	114	34	25	219
Back	25	7	103	24	10	109	49	17	212
Body build	35	11	89	36	9	98	71	20	187
Height	21	11	103	40	12	91	61	23	194
Weight distribution	28	11	96	37	8	98	65	19	194
Waist	23	15	97	32	13	98	55	28	195
Chest	35	10	90	43	10	90	78	20	180
Shoulder width	30	10	95	34	8	101	64	18	196
Arms	25	11	99	21	16	106	46	27	205
Hips	27	6	102	34	8	101	61	14	203
Legs	25	7	103	43	10	90	68	17	193
Feet	23	9	103	22	17	104	45	26	207
Knees	26	9	100	30	10	103	56	19	203
Finger nails	25	9	101	30	9	104	55	18	205
Sex	8	9	118	20	11	112	28	20	230
age	12	14	109	20	17	106	32	31	215

+: having lower body cathexis after appearance management  
 -: having higher body cathexis after appearance management  
 0: having no change body cathexis after appearance mangement

4.3. 신장 차이에 따른 외모관리 전·후의 신체만족도 차이

신체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Table 4, 5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키 차이에 따라서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얼굴색, 귀, 손가락, 체격, 키, 허리, 어깨넓이, 목, 신체 전체에 대해서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었으나, 던컨의 사후검정 결과 키 차이간에 신체만족 정도에서 차이가 인정되는 신체부위는 외모관리전·후 모두 얼굴형, 체격, 키, 전체 신체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외모관리 전 키 차이에 따라서 신체만족도를 차이를 보인 신체 부위는 얼굴형, 체격, 키 부위로써, 즉 키가 큰 남성일수록 얼굴형, 체격, 키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관리 후에도 변함없이 키 차이에 따라서 얼굴형, 체격, 키 부위에 대한 만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남성은 여성과 달리 굽이 높은 신발을 신지 않으므로 신발에 의한 신체조절 기능이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므로 키가 작은 남성을 위한 신발 개발이 요구되는 바이다.

여성의 경우는 외모관리 전 키 차이에 따라서 신체만족도 차이를 보인 신체 부위는 목, 체격, 키, 손뚱부위로써 즉 키가 큰 여성일수록 목, 체격, 키, 손뚱부위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관리 후에는 목과 손뚱 부위에 대해서는 키 차이에 따른 차이가 없어지고 단지 키, 체격부위만 변함없이 키 차이에 따라서 체격, 키에 대한 만족이 다르게 나타났다.

**Table 4.** Body cathexis before-after appearance management according to height difference

Body item		165~169 n=22	170~174 n=53	175~179 n=47	180~184 n=13	F-Value		
Male	BCBAM	Facial complexion	3.7619a	3.264ab	2.9792b	3.2308ab	2.708*	
		Body build	2.6667b	2.9057b	3.5833a	3.6923a	6.394***	
		Height	2.2857c	2.5849c	3.5208b	4.6254a	25.758***	
	BCAAM	Facial complexion	3.8095a	3.4717ab	3.0833b	3.3077ab	2.784*	
		Ears	3.5714b	3.8679ab	3.3542b	4.1538a	3.809*	
		Body build	2.9048c	3.2075bc	3.5625ab	4.0000a	.740*	
		Height	2.6190c	2.5415c	3.4584b	4.6923a	20.747***	
			150~154 (N=8)	155~159 (N=19)	160~164 (N=64)	165~169 (N=39)	170이상 (N=13)	F-Value
Female	BCBAM	Neck	3.2857ab	2.722b	3.333ab	3.5610a	3.0000ab	2.704*
		Body build	1.7143b	2.3889ab	2.4848a	3.0488a	3.0000a	4.508**
		Height	1.4286d	1.8889cd	2.3636c	3.3902b	4.4545a	18.666***
		Finger nails	3.7143a	2.889b	3.4848ab	3.1463ab	2.7273b	2.526*
		Age	3.0000ab	2.6666c	3.1212ab	4.3659a	2.7273ab	2.633*
	BCAAM	Body build	1.8333b	2.7368a	2.7727a	3.2195a	3.1858a	3.441*
		Height	1.6667d	2.3158cd	2.5909c	3.5122b	4.3636a	12.185***
		Waist	2.5000b	2.7368ab	2.8939ab	3.4146a	2.6364ab	2.769*

\*p<0.05, \*\*p<0.01, \*\*\*p<.001

BCBAM : body cathexis before appearance management

BCAAM : body cathexis after appearance management

키가 작은 여성을 위한 신발이나 의복디자인의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신장차이에 따른 신체만족도의 차이는 키가 작은 남성보다 키 작은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남성의 경우 키와 신체 전반, 어깨넓이, 체격, 키와 상관관계가 높으나, 여성의 경우는 키와 체격, 키, 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4. 몸무게 차이에 따른 외모관리 전·후의 신체만족도 차이**

몸무게 차이에 따라서 외모관리 전·후의 신체 각 부위별 신체만족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Table 5를 살펴보면 남성은 얼굴색, 두상, 이빨, 손가락, 근육, 허리, 체격, 키, 지방질 분포, 가슴, 힙, 손뼉 부위에서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었으나, 던컨의 사후검정 결과 외모관리 전에는 근육, 체격, 허리, 키, 가슴 부위에 대한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몸무게 많이 나가는 남성일수록 자신의 신체 부위 중 근육, 체격, 허리, 키, 가슴 부위에 대한 신체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모관리 후에는 머리카락색, 두상, 허리, 체격 부위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고 근육, 가슴, 키 부위에 대해서는 몸무게 차이에 따라서 신체만족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남성의 근육, 가슴 부위에 대한 의복의 보상효과는 큰 것으로 인정된다.

여성의 경우는 몸무게 차이에 따라서 신체만족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Table 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머리색, 뺨, 키, 허

리, 체격, 지방질 분포, 다리, 발 부위에서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었으나, 던컨의 사후검정 결과 몸무게 차이에 따른 신체만족 정도에서 차이가 인정되는 신체부위는 외모관리 전에는 키, 지방질분포, 허리 부위로써 즉 키가 큰 여성일수록 키, 지방질분포, 허리부위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즉, 몸무게 많이 나가는 여성일수록 자신의 신체 부위 중 체격과 키, 그리고 신체 전반, 얼굴형에 대한 신체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관리 후에도 변함없이 몸무게 차이에 따라서 키, 지방질분포, 허리 부위에 대한 만족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체중이 비교적 많이 나가는 여성을 위한 의복디자인의 개발이 요구된다.

**4.5. 비만도 차이에 따른 외모관리 전·후의 신체만족도 차이**

Röhrer지수에 의해 구분한 체형 차이에 따라 신체 각 부위별 신체 만족도 차이를 밝혀보면 Table 6, 남성의 경우 외모관리 전 빈약형과 표준형의 신체 각 부위별 만족 차이를 보면, 이빨, 근육, 손목, 체격, 가슴, 엉덩이, 손뼉부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는데, 빈약형은 표준형에 비해 이빨, 근육, 손목, 체격, 가슴, 엉덩이, 손뼉부위에 대해서 표준형보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가슴, 엉덩이, 체격 부위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만족도의 차이는 외모관리 후에는 많이 줄어드는데, 외모관리 전에 심한 차이를 보인 가슴, 체격, 엉덩이 부위의 차이가 없어지고 머리결, 등, 키에 만족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남성의 상의의

**Table 5.** Body cathexis before-after appearance management according to weight difference

		Body item	55~59 kg (n=21)	60~64 kg (n=37)	65~69 kg (n=42)	70~74 kg (n=20)	75 kg이상 (n=15)	F value
Male	BCBAM	Teeth	2.5455b	3.1714a	2.9070ab	3.4500a	3.2667a	2.721*
		Muscle	2.9091b	2.9429b	3.0930ab	3.6500a	3.6000a	2.787*
		Wrist	2.9091b	2.8000b	3.2093ab	3.7000a	3.6000a	4.267**
		Body build	2.4091c	2.8857bc	3.1860b	4.0000a	3.9333a	9.952***
		Height	2.5455c	2.8571bc	3.1395abc	3.6000a	3.4000ab	3.005*
		Chest	2.7727c	3.0571bc	3.2791abc	3.7000a	3.5333ab	3.529**
	BCAAM	Hair texture	3.8182a	3.6471a	3.3636ab	3.6667a	2.8571b	3.183*
		Shape of head	3.7727a	3.5294a	3.2955a	3.3810a	2.5714b	3.405*
		Wrist	3.2727ab	2.9412b	3.2727ab	3.6667a	3.4286ab	2.455*
		Body build	2.8182c	3.2059bc	3.3409abc	3.9524a	3.7857ab	3.825**
			40~43 kg (n=11)	44~47 kg (n=33)	48~51 kg (n=46)	52~55 kg (n=31)	56 kg이상 (n=22)	F-value
Female	BCBAM	Height	2.2500b	2.2564b	2.7609ab	3.2258a	3.0667a	3.291*
		Weith distribution	3.7500a	2.7436b	2.5000b	2.2258b	1.6000c	8.992***
		Waist	3.7500a	2.8974b	3.9130b	2.5161bc	2.2000c	4.298**
	BCAAM	Height	2.333b	2.5250ab	3.0667ab	3.3226a	3.133ab	2.793*
		Weigh dis-	4.000a	2.8250b	2.8222b	2.5161b	2.4667b	4.629**
		Waist	3.7500a	2.9600b	3.1778a	2.6774b	2.5333b	3.453*

\*p<0.05, \*\*p<0.01, \*\*\*p<0.001

BCBAM : body cathexis before appearance management

BCAAM : body cathexis after appearance management

**Table 6.** Body cathexis before-after appearance management according to body type differences

		Body item	Slim type n=43	Standard type n=92	F value
M a l e	BCBAM	Teeth	3.01	3.23	5.315*
		Muscle	3.14	3.34	4.902*
		Wrist	3.14	3.25	4.745*
		Body build	3.17	3.35	5.683*
		Chest	3.22	3.42	13.554***
		Hip	3.15	3.28	5.797*
		Finger nail	3.42	3.59	5.527*
	BCAAM	Hair texture	3.72	3.39	4.198*
		Back	3.11	3.45	5.595*
		Height	3.43	2.97	5.236*
F e m a l e	BCBAM	Body build	2.76	2.37	4.784*
		Height	2.87	2.39	4.269*
		Weight distribution	2.84	1.85	30.3***
	BCAAM	Waist	2.97	2.50	5.681*
		Arms	3.21	2.80	5.337*
		Muscle	3.07	2.76	4.401*
		Back	3.44	3.07	5.4821*
		Body build	3.01	2.63	4.418*
		Height	3.06	2.61	3.987*
		Weight distribution	3.05	2.33	14.046***
Waist	3.19	2.57	11.290***		

\*p<0.05, \*\*p<0.01, \*\*\*p<0.001

BCBAM : body cathexis before appearance management

가슴부위, 바지의 엉덩이 부위에 대한 의복의 조절효과가 매우 높아서 의복의 심리적 보상효과가 인정되므로 특히 20대 남성 복을 디자인할 때 이 부위에 대해서 주의하여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남성의 경우는 표준형이 빈약형보다 만족 점수가 더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는 표준형이 빈약형보다 만족 점수가 더 낮은 현상을 보여 여성은 보다 가늘어지고 싶어하고 남성은 빈약보다는 적당한 신체 구조를 원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여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외모관리 전 빈약형, 표준형 두 그룹간의 신체 부위별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체격, 키, 지방질 분포, 허리, 팔, 근육, 등 부위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즉, 빈약형은 표준형보다 체격, 키, 지방질 분포, 허리, 팔, 근육, 등 부위에 대한 신체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모를 관리 한 후에는 팔, 근육, 등 부위에 대해서는 두 그룹간에 신체 만족의 차이가 보이지 않아 팔, 근육 형태, 등에 대한 만족의 부족함은 외모조절로 차이가 줄어들 특히 의복은 여성의 팔, 근육, 등 부위에 대한 조절효과가 인정된다. 표준형 여성을 위한 의복은 특히 팔, 근육, 등 부위를 관리 조절할 수 있는 형태의 의복 디자인이 요구되는 바이다.

## 5. 결 론

1. 외모관리 전 후 간에 차이를 가장 많이 보이는 신체 부위는 머리결, 머리카락색, 얼굴형태, 얼굴색, 두상, 피부색, 등 얼

굴부위와 눈, 입술, 이빨, 이마, 등 얼굴 부위, 그리고 등, 체격, 지방질 분포, 허리, 가슴, 어깨넓이, 힙, 다리, 손톱 등 넓이 부위로 나타났다.

2. 성차이에 따른 외모관리 전 후의 신체만족도 차이는 머리결, 얼굴색, 귀, 눈, 이빨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에 대한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3. 남성의 경우 외모관리 전·후 모두 키가 큰 남성일수록 얼굴형, 체격, 키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외모관리 전에는 키가 큰 여성일수록 목, 체격, 키, 손톱부위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모관리 후에는 키, 체격부위에 대한 만족이 다르게 나타났다.

4. 외모관리 전에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남성일수록 근육, 허리, 체격, 키, 가슴, 외모에 더 만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모관리 후에는 근육, 체격, 허리, 키부위에 대해서는 만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외모관리 전·후 모두 키가 큰 여성일수록 키, 지방질분포, 허리부위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비만도 차이에 따른 외모관리 전·후의 신체만족도 차이는 남성의 경우 외모관리 전에는 빈약형은 특히 가슴, 엉덩이, 체격 부위에 대해서 표준형보다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외모관리 후에는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 등, 키에 만족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외모관리 전 빈약형은 표준형보다 체격, 키, 지방질 분포, 허리, 팔, 근육, 등 부위에 대한 신체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모를 관리 한 후에는 팔, 근육, 등 부위에 대해서는 두 그룹간에 신체 만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참고문헌

- 강승희 (1992) 의복동기 및 의복구매태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성인 남자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혜원·유경숙 (1984) 노년층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서울, 광주거주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애란·김양진 (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지*, 20(4), 667-681.
- 구양숙·추태귀 (1996)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의복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지*, 34(5), 29-39.
- 김양진·강혜원 (1992)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지*, 16(2), 197-209.
- 김용숙(1986) 기혼 여성들의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에 관하여. *대한가정학지*, 24(3), 1-9.
- 김용숙 (1990) 전북지역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만족도와 유행지향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지*, 28(4), 177-189.
- 박미애 (1987) 노년여성의 신체적자아 및 생활만족도와 의복태도와 의 관계-서울 시내 노인학교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우미 (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지*, 31(1), 163-180.
- 유경숙 (1996) 티셔츠색 선호, 외모만족도와 외향성과의 관계-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부식*, 27, 75-85.
- 이명희 (1982) 예의, 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지·이인자 (1996) 성인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따른 미니스타일 선호에 관한 연구. *부식*, 30, 59-68.
- 이영운·강혜원 (1982)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지*, 6(2), 17-24.
- 정삼호 (1996)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 디자인 선호 연구(1)-선의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지*, 15(2), 103-114.
- 정재은·이순원(1993) 20대 여성의 실제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지*, 17(3), 448-458.
- 정재은·이순원(1998) 20대 남성의 실제체형과 신체이상형(이상형)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지*, 17(2), 49-63.
- 정희용·임숙자 (1988) 노년기 여성의 자아지각과 의복관심과의 상관 연구. *한국의류학지*, 12(3), 333-342.
- 최유미·손희순(1997) 중년기 여성의 실제체형과 신체의식에 관한 연구. *부식*, 31호(2월), 119-130.
- 홍병숙 (1996) 노년기 여성의 신체만족도와 의복관여도에 따른 점포 선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지*, 34(4), 345-356.
- 황진숙 (1997) 신체만족도와 기성복에 대한 만족의 상관관계 연구. *부식*, 34(9), 183-193.
- 황진숙 (1998) 노년층 남성과 여성의 인구통계적 특성이 신체만족도와 의복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지*, 36(4), 179-188.
- 神山進 (1987) 自己と被服との關係(第2報). *日本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28(2), 77-84.
- Hwang J.S. (1998) The Effects of Body Image on Clothing Attitude, Fashion Innovativeness, and Shopping in American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2(8), 1069-1078.
- Dubler M.L.J. Gurel L.M., (1984) Depression : Relationships to Clothing and Appearance Self Concep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1), 21-26.
- Ford I.M., M.F. Drake (1982) Attitudes toward Clothing, Body, and Self : A Comparison of Two Group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2), 189-196.
- Horn M.j., (1975) "The Second Skin :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Houghton Mifflin Co., Boston pp.135-200.
- Johnson L.C., (1956) Body Cathexis as a Factor in Somatic Complai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0(2), 145-149.
- Kefgen M., Touchie-Specht P. (1986)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4th Ed). Macmillan, Nov, pp.167-180.
- Karen L.L. Marilyn R.D. (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43-48.
- McLean F.P. (1978) The Process of Age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o Clothing Satisfactio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tah State University.
- Perry L.A. (1985) "Clothing Satisfaction and Self-Concept of Elderly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 State University.
- Rook D.W. (1987) Body Cathexis and Market Segmentation. In M.R. Solomon,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233-241, Lexington: Heath/Lexington Books.
- Richard E.A., Hawthorne R.E. (1971) Values, Body Cathexis and

-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63(3), 190-194.
- Sontag M.S., Shalter J.D. (1982)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 Textile Research Journal*, 1(2), 1-8.
- Secord P.F., Jourard S.M. (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 17(5), 343-347.
- Shim, S. Antigone K. & Diane S. Knoll, S. (1990) Average-Height, Tall, and Big Men: Body-Cathexis, Clothing and Retail Satisfactions, and Clothing Behavior,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0, 83-96.

(1999년 5월 8일 접수)

---